

<2018년 5월 13일 주일말씀>

온 세상의 참된 스승이 누구냐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 주는 자다)

본 문 디모데후서 4장 2-4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이번 주는 <스승의 날 주간>이니,
‘온 세상의 참된 스승’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 시작>

- ◆ <스승>이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선생’을 말합니다.
- ◆ <스승>에는 ‘자기 민족의 스승’이 있고,
‘세계의 스승’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승>이 누구냐고 하면,
흔히 ‘예수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 ‘육신과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 그리고 ‘죄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른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서,
육도 영도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니,

-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이고,
-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 것이고,
-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석가모니>

◆ <석가모니>는 ‘불교의 지도자’로서

-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간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 불교의 전경(全經)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베풀어라.

그것에 대한 대가나 칭찬, 공덕(功德)을 바라지 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고,
잃었다 하여 번민하지 마라.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선업을 행하는 자는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악업을 행하는 자는 악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하는 등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종으로 선하게 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 석가의 가르침은 ‘영육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고로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근본의 선과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 ◆ <근본의 선(善)>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善)’입니다.

- ◆ 그런데 <불교에서 최고의 선>은
 -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보고,
 -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리도 절을 합니다.

3000번씩도 합니다.

이는 ‘자유’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3000번씩 절을 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 것입니다.

이는 <구원과 연결된 행위>가 아닌,
<하나의 도를 닦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 ◆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나 영혼이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신상을 세워, 3000번씩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따라 한 번씩 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함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 ◆ <소크라테스>는 ‘인생’에 대해 논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학문’으로 논하며 가르쳤습니다.
역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고로 이 역시 ‘온 인류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자>

- ◆ <공자>는 ‘부모 공경, 어진 사람, 예절, 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산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이의 영혼을 섬기겠는가.

삶에 대해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어진 사람은 난관의 극복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고,
성공 여부는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모르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도덕적이고자 하면, 덕에 이르느니라.” 하며,

인간의 도리와 덕목에 대해 많이 가르쳤습니다.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고,
‘**근본의 선과 의, 성공**’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고,
‘**죄 문제 해결**’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 ◆ <세계적인 큰 스승>이라면,
 - ‘삼위일체’에 대해 가르쳐 줘야 됩니다.
 - ‘영원한 구원’에 대해 가르쳐 줘야 됩니다.

-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 ‘육과 영의 세계’ 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세계적인 스승’ 입니다.

◆ 〈세계적인 참된 스승〉이라면,

- ‘성경’ 을 풀어서 ‘그 말씀을 이행’ 하고,
-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을 가르쳐 주고,
‘그 목적을 실행’ 하여 ‘창조 목적과 뜻’ 을 이뤄야 됩니다.
- 그리함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고 약속하신 소원〉을 이뤄 드리고,
그로 인해 〈인생들의 소망〉을 이뤄 줘야 됩니다.

이런 뜻을 행하는 자가

〈온 세상의 참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 〈진정한 스승〉이라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가 되게 해 줘야 됩니다.

곧 삼위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 줘야 됩니다.

◆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실, 도리〉
이런 것은 성장하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누구나 성장하면 〈자신〉도 알고, 〈자비〉도 알고,
〈일반적인 선한 행실〉도 알고, 〈무지〉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이 태어난 목적〉, 〈하나님의 뜻〉,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스승’ 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과 도’ 를 를 받아들이고 살았어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영원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 ‘영원한 하나님’ 을 알았고,
- ‘육도 영도 구원’ 을 받았고,
- ‘하나님의 자녀’ 도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육신>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 로 살았고,
그 <영혼>도 ‘영원히 천국’ 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는 가르쳤고 <그 뜻>도 이루었으나,
<절대자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근본의 창조 목적>은
가르치지 못하여, <근본 창조의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 <이 시대 스승>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배워서

- ‘인생들이 지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을 가르쳐 주었고,
- ‘삼위가 원하시는 최고의 뜻’ 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 해 주어 구원받게 해 주었습니다.
- 40년 동안 ‘수천 번의 말씀’ 을 전하고 ‘5만 이상의 잠언’ 을
써 주어, 삼위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승 본인 먼저 그 말씀과 잠언대로 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 ‘시대의 죄’를 대신하고 조건을 세워 태어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는지,
<지난 40년 동안 가르친 말씀>과 <행한 일>을 보면 압니다.
- <삼위가 지상에 거할 자연성전>도 지었습니다.
이곳에 하늘 신부들이 모여들어 성삼위께 영광 돌립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른 자들>은

- ‘영원하고 참된 선의 사람’이 되었고,
 -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고,
 - ‘휴거’로 ‘더 이상은 없는 인간 최고의 소원’을 이루었고,
 -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었습니다.
 - 이로써 그 영혼들이 ‘최고의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 ◆ 지금도 그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로서
- 때로는 입을 벌려 가르치기도 하고,
 - 생활 가운데 손수 행하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온 세상 스승 중의 스승>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3-4절>을 보면,
-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했습니다.

- ◆ 이 세상에는 <인생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스승>, <자기 중심으로 가르치는 스승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은 잘 가르친다 해도

- <지극히 인간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고,
- <배워도 특별한 것이 없는, 지식에 속한 가르침>이고,
- <인생들이 크면서 다 알게 될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마다 자기를 따르고 섬기라고 각종 것들을 가르치며, 자기를 ‘스승’ 이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과 스승>은 맞는데, 그 가르침은 한낱 ‘지식’ 과 ‘상식’ 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멋있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 ◆ <이 시대 스승>은
 - <하나님>과 <인생의 근본 목적>에 대해 가르치며,
 -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 최고의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그는 늘 ‘예수님’ 을 스승으로 삼고 살았고,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가 가르쳤다 합니다.

지금도 <삼위>가 늘 가르치며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항상 그 옆 1m 안에 계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가르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고픈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하고, <성자>가 하시고픈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
<그의 고향,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매일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 ◆ 오늘도 선생은 하나님과 성령께 배워서 말씀합니다.

“행할 때, 깨닫게 해 준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행할 때, 삼위는 어떻게 행할지 깨닫게 해 준다.

특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할 때 깨닫게 해 준다.”

이 말씀은 선생이 행할 때, 삼위가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 끝까지 행해야 됩니다!

- ◆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하는 자들을 쳐다보며
자기는 섭리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이 깊고,
- 선생이 자기를 직접 만나 주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타고,
자기 갈 길은 따로 있으니
섭리사를 나가겠다 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자기 신앙을 측정하는 근거’**입니다.

- ◆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선생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대로 구원을 못 받은 자인가?’

선생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은 자인가?

행한 것 없이, 영광만 받으려는 자인가?’ 합니다.

‘자기 소망만 이루려는 자들’입니다.

- ◆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며, <그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 ◆ 섭리사의 사람들이나 지구상에 사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개인, 가정, 민족의 평화가 오고 잘되고 형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니,
<민족과 세계의 평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자가 <시대의 참된 스승>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 ◆ 더 하고픈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계속해서 ‘스승의 행함’으로 말씀할 것입니다.

 주의 평강을 빕니다.